조선사회과학자협회

통 보



2

2015

차　　　례

소론문

사　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김우혁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련이어 일어나 만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온 강산에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민위천의 한생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것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선 천리혜안의 예지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상의 목표와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스승이시다.

령도자의 예지는 혁명과 건설의 등대와도 같다. 그 빛나는 예지가 있어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되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시고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꽃피워주시려 끊임없는 사색을 기울이고 계신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문명정도와 발전추세를 환히 꿰들고 세계적수준의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통이 크게 일떠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의 세계는 그 누구도 헤아릴수 없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예지에 의하여 은하과학자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류경치과병원과 옥류아동병원,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같은 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되게 되였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애국애민의 사상과 진취적이며 혁신적인 안목으로 최상의 목표와 과학적인 설계도를 제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가 있기에 우리 조국에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희한한 창조물들이 끊임없이 일떠서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또한 무한대한 정열과 끝없는 헌신으로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을 하나하나 꽃펴주시는 위대한 실천가이시다.

령도자의 정열과 헌신은 창조와 건설의 추동력이다. 령도자의 정열과 헌신에 의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오신 애국애민의 정열과 헌신은 하늘에도 바다에도 비길수 없다. 수많은 건설대상들을 한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며 그 진척정형을 알아보시고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해주시면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빨찌산식강행군으로 온 나라를 종횡무진하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를 창조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우는 일이라면 그것이 비록 크지 않은 일이라도 거기에 자신의 정과 열을 다 쏟으시며 구체적이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더 높은 목표에로 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정열과 헌신이야말로 력사에 전무후무한것이다.

끝없는 정열과 무한대한 헌신으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은 우리가 정한 시간대로 일떠서고야 말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또한 선군의 기치밑에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이시다.

선군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의 위력한 보검이다. 강력한 군력이 없이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수 없다.

오늘날에도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는것은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에 의거하시여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신다.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도, 인민을 위한 문명개화기를 펼쳐나가는데서도 강력한 총대를 앞세워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끊임없는 전선길을 이어가시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선군장정의 길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위력은 하늘땅을 진감시키며 원쑤들을 전률케 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마음대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는 군민협동작전과 대담하고 련속적인 공격전으로 어떤 목표도 단숨에 점령하게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땅우에는 새로운 조선속도가 끊임없이 창조되여 인민들이 만복을 누릴 훌륭한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다.

참으로 온 나라에 천지개벽을 안아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자신께서 앞장에 서시여 사회주의경제강국과 문명국건설의 씨앗을 뿌리시고 온 넋과 심장으로 가꾸시여 풍성한 열매를 안아오시는 가장 값높은 헌신이고 실천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로를 환히 밝히시고 불타는 헌신과 로고로 우리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를 높이 모시였기에 **김정은**시대는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실현되는 영광의 시대로 빛을 뿌릴것이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자주의 정치

리성철

선군정치가 커다란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나가고있는 근본비결은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을 구현해나가는 실천투쟁속에서 심화발전된 사상으로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완벽하게,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혁명리론입니다.》

선군정치는 우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자주의 정치이다.

자주는 주체사상에 관통되여있는 근본핵이다. 주체사상은 시대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와 관점으로부터 처음으로 자주성을 나라와 민족의 생명, 인민대중의 생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근본요구로 내세우고있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우리 식의 독창적인 정치이다.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과 자주성실현의 근본방도를 밝혀주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자주성을 견지하고 지켜나가는 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쉬운것은 아니다. 오직 자체의 튼튼한 힘을 가질 때만이 자주의 리념이 실현될수 있다. 아무리 자주성을 지향하고 실현해나가자고 하여도 그것을 지킬만한 힘이 없으면 그것은 빈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국력에서 기본은 군력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총대를 앞세우

는 군사중시의 정치에 의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번영도 있으며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나가기 위한 근본방도가 있다는것이 력사가 보여주는 피의 교훈이다.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선군정치야말로 혁명의 근본리념, 근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철저히 옹호고수해나가게 하는 민족수호, 민족자주의 튼튼한 보검이라는것을 웅변으로 확증해주었다.

선군정치는 또한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자주의 정치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자면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는것이 사회력사에 관한 주체사상의 중요한 요구이며 내용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에는 주체사회력사관의 이러한 요구가 구현되여있다. 선군정치는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고 그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해나가게 하는 정치방식이다.

선군시대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군대와 9 인민의 통일체이다. 선군시대 일심단결의 특징은 수령을 중심으로 혁명대오에서 가장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력량인 군대를 기둥으로 굳게 뭉친 단결이라는데 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정치에 의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심단결의 위력은 높이 떨쳐지고있다.

일심단결의 생활력은 인민군대가 창조한 혁명정신이 전대오에 나래치고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전고 울리며 민족번영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고있는데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천만군민의 단결된 힘이 있어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져 소생하지 못할 그런 최악의 역경속에서 화가 복으로 전환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될수 있었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펼쳐진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 창조와 변혁의 경이적인 사변들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에 기초한 불패의 일심단결이 낳은 빛나는 결실인것이다.

우리 혁명의 력사적행로는 주체는 곧 선군이며 선군은 단결이라는것을 혁명의 철리, 력사의 진리로 똑똑히 새겨주고있다.

선군정치는 또한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대로 해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자주의 정치이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으로 해나갈것을 요구하는 자주의 사상이다. 자주적립장의 견지, 창조적방법의 구현, 이것이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 근본방법이다.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자기 리익의 견지에서 해나가는데 자주적발전의 진로가 있다. 외세의존은 치욕의 길, 망국의 길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극도에 이르고있는 오늘 혁명과 건설을 자기 나라 리익의 견지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해나간다는것이 결코 쉽지 않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창조적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원칙도 강력한 힘에 의하여서만 담보될수 있다.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선군정치는 혁명과 건설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기 식으로 해나갈수 있게 하는 자주적인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의 정치군사적압력과 그 어떤 내정간섭도 용납하지 않는 담대한 배짱과 무비의 담력을 낳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선군정치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과 같이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속에서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마음먹은대로 독자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풀어나가고있다.

이 모든것은 선군정치야말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자주의 정치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문제

김혁철

현시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적경험과 교훈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가 못지키는가 하는것이 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문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며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나간다는것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되는것은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기때문이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다같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있다.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지키지 못하면 부강번영은 고사하고 외세에게 눌리여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들의 생명이라고 하여 결코 그것이 저절로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

나갈 때 확고히 지켜지게 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면 민족자주의 대를 확고히 세우고 자기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으로, 자기 힘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나라와 민족은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독자적인 결심과 판단에 따라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해나갈수 있다.

만일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고 난관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앉아 신념을 저버리고 자신이 택한 길에서 물러서게 되면 다시는 일어설수 없게 된다. 이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지 못하여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가던 나라와 민족들이 처한 파국적운명이 확증하여준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되는것은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은 주체적력량이다. 주체적력량이 강해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할수 있고 자기 힘으로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주체적력량을 마련하는데서 기본은 자체의 정치적력량,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혁명의 주체의 위력은 일심단결에 있다. 일심단결을 떠나 혁명의 주체의 위력에 대하여,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는 과정에 모든 민족성원들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결합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된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은 불패의 군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군력이 약하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킬수 없고 나중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롱락물로, 희생물로 되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총대우에 정의와 평화, 부강번영이 있다. 강력한 총대는 나라와 민족을 굳건히 수호해줄뿐아니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도록 힘있게 떠밀어준다.

강위력한 군력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갈 때 불패의것으로 다져질수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과정에 자기 조국과 민족을 보위할수 있는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게 된다.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자주적발전은 자체의 경제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으며 그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갈 때 실현되게 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나라와 민족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나라 혁명의 요구와 구체적현실에 맞게 자체의 투쟁으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간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여 주체적력량을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나감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륭성번영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기때문이다.

현시기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과 침략책동은 더욱더 로골화되고있으며 그로 하여 많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침해당하고 자주적발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일체화》라는 강도적리론을 내걸고 전세계를 서방식 《자유세계》로 만들어 모든 민족들을 저들에게 예속시키려고 책동하고있으며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군사적간섭과 사상문화적침투책동, 제재와 봉쇄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야 민족의 넋을 끝까지 지켜나갈수 있다.

민족의 넋은 민족성의 근본바탕이며 민족생존의 핵이다. 민족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나가는 민족만이 자기의 본태를 잊지 않고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문화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갈수 있다.

이로부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곧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민족의 넋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하면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민족의 힘으로 저지파탄시킬수 있으며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민족유산과 민족문화전통을 옳게 살리고 민족의 새로운 우수성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가 못지키는가 하는가에 달려있다.

군민대단결은 선군조선의 참모습

탁명성

위대한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군대와 인민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동지적관계로 굳게 결합되고 사상과 투쟁기풍에서 완전한 일치를 실현한것이 선군시대 조선의 군민대단결이다.

혁명군대의 사상과 투쟁기풍을 온 사회가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가는 과정에 군대와 인민이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된 조선의 군민대단결처럼 공고하고 위력한 단결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선군조선의 참모습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초석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최근에 조국강산을 진감시키며 련이어 일어난 눈부신 기적은 그 어느것이나 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산물입니다.》

군민대단결은 우선 정치사상적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선군조선의 참모습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적위력은 군대와 인민이 선군혁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로 굳게 뭉쳐 힘차게 나아가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의 제일기수로 위력떨치고있다. 수뇌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는 자폭용사들의 대오도 우리 인민군대이고 수뇌부의 사상과 업적, 권위를 지키는 일에서는 추호의 타협을 모르는것도 인민군대이며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저없이 뛰여들며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부대도 인민군대이다.

인민군대의 사상과 정신이자 우리 인민들의 사상과 정신이다.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수령결사옹위의 길에서 발휘한 인민군대의 투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수령결사옹위의 열혈투사로 자라나고있다.

천만군민이 수뇌부결사옹위의 결정체로 뭉친 이 숭고한 풍모는 인민군대가 수뇌부결사옹위의 결정체로 위력떨치고 전민이 인민군대를 닮아가는 과정에 이룩된 선군조선의 참모습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적진지를 불패의것으로 다지는 원천으로 된다.

군민대단결은 또한 군사강국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선군조선의 참모습이다.

인민군대는 불패의 군사강국의 기둥이며 인민은 반제군사전선의 믿음직한 후방이다. 기둥이 굳건하고 기초가 튼튼해야 사회주의군사강국으로서의 위력을 떨칠수 있다. 군대는 원민을 하고 인민은 원군을 하며 말그대로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될 때 군력은 불패의것으로 더욱 강화되게 된다.

군대는 원민을 하고 인민은 원군을 하는 우리 사회의 기풍은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켰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려는 전사회적인 기풍속에 혁명적군인가정의 대오가 늘어나고 원군기풍이 높이 발양되여 군민대단결의 미풍이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다.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 군민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핵억제력을 포함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불패의 군사강국의 위용을 당당히 떨치고있다. 군대는 원민을 하고 인민은 원군을 하며 한마음한뜻이 되여 군력강화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군민단결의 참모습은 위대한 령장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있는 선군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자랑찬 현실이다.

군민대단결은 또한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선군조선의 참모습이다.

민족번영의 참다운 길은 군대와 인민의 단결된 힘, 정신력에 있다.

군대와 인민의 단결된 힘에서 조국번영의 위대한 힘이 분출된다.

군민대단결은 인민군대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기풍과 일본새로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경제강국건설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문들에 달려나가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인민들을 거창한 창조와 변혁에로 고무추동하고있으며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밑천들을 수많이 창조하고있다. 인민군대가 명실공히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가 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사상정신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도와주고 인민이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일본새를 따라배워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음으로 하여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군대가 있지만 선군조선에서와 같이 천만군민이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한 나라는 없다.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의 빛나는 실현, 군민대단결의 자랑스러운 면모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펼쳐진 선군조선의 참모습이다.

오늘 우리의 군민대단결의 위력은 선군정치의 위력의 원천이고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위력한 추동력이다.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선군혁명위업을 군민대단결로 완성해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고 의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군민대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단결의 위력으로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성스러운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리상이 실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온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다.

조선의 민속전통

(옷차림풍속)



삼국시기



남자귀족의 옷차림

남자평민의 옷차림

녀자평민의 옷차림

녀자평민의 옷차림

녀자귀족의 옷차림 녀자귀족의 옷차림

남녀어린이의 옷차림

고려시기



남자의 옷차림

녀자의 옷차림


조선봉건왕조시기
남자의 봄, 가을철 옷차림
남자의 여름철 옷차림
녀자의 봄, 가을철 옷차림
녀자의 여름철 옷차림
신부의 혼례옷차림
(평안도지방)
신부의 혼례옷차림
(개성지방)
남녀어린이의 옷차림

